

메시지 9
석류의 땅

성경: 신 8:8, 출 28:33-34, 왕상 7:18-20, 아 4:3하, 13상, 벧후 1:3-8

I. 성경에서 석류는 생명의 충만, 생명의 풍성함과 아름다움, 생명의 풍성의 표현을 상징한다 — 신 8:8, 출 28:33-34, 왕상 7:18-20, 아 4:3하, 13상.

- A. 씨가 가득한 익은 석류는 생명이 충만하고 풍성하며 아름답다는 인상을 준다.
- B. 우리가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에워쌀 것이다. 이것이 석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다.
- C. 우리가 생명이 자라 성숙에 이르면, 우리는 석류가 될 것이다 — 골 2:19, 1:28.
 - 1.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그분께 다스림을 받고 제한을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생명이 자랄 것이다 — 골 1:13, 28.
 - 2.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광대하시다는 이상을 본다면,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께 우리 전 존재를 집중시킬 것이며, 그분은 우리를 채우시고 적시실 것이다 — 골 1:12, 2:9, 16-17, 3:10-11.
 - a. 우리의 존재는 광활하시고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시며 광대하신 그리스도로 점유될 것이다 — 엡 3:18.
 - b. 우리에게 있어서 삶은 우리를 소유하시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점유하신 그리스도일 것이다 — 빌 1:20-21상, 엡 3:17상.
 - 3.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적셔지며 침투되는 것이다 — 골 1:28.
 - a. 이것은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이 그리스도로 점유되게 하는 것이다 — 엡 3:17상, 갈 4:19.
 - b. 이것은 골로새서에 계시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결과 생명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다 — 골 2:9, 19, 3:4, 10-11.

II. 대제사장 겔롯의 옷단에는 석류와 금방울이 달렸는데, 이 겔롯은 교회를 상징한다 — 출 28:33-34.

- A. 교회는 그 인성에 있어서 생명으로 충만해야 한다. 이것이 아마실로 만들어진 석류의 의미이다.
- B. 교회에는 생명의 충만을 표현하기 위한 인성이 있고, 금방울 소리를 내기 위한 신성도 있다.
 - 1. 생명의 충만은 교회의 인성 안에서 표현되지만, 경고의 음성은 교회의 신성(금방울) 안에서 표현된다.
 - 2. 우리는 먼저 생명의 충만의 표현을 갖고, 그런 다음에 금방울 소리, 곧 교회의 신성에서부터 나오는 말씀하심을 갖는다.
 - 3. 우리의 인성 안에서 표현된 생명의 아름다움과 금방울에서 들리는 신성한 소리는 합당한 교회 생활의 표시이다.

III. 성전 기둥 꼭대기의 기둥머리를 두르고 있는 석류 이백 개는 생명의 풍성의 표현을 상징한다 — 왕상 7:18-20, 대하 3:15-16, 렘 52:22-23.

- A. 자신을 심판하고(못)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이들은 얽혀 있고 복잡한 상황(격자 무늬 그물과 사슬 모양 고리) 가운데서 완전한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은 그들이 자신에 의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백합 모양) 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생명의 풍성(석류)을 이백 배로 표현한다 — 왕상 7:15-22.
- B. 백 개의 석류마다 구십육 개의 석류는 대기를 향해 드러나 있었고, 네 개는 덮여 있었다 — 렘 52:22-23.
 - 1. 생명의 풍성의 표현은 영원토록 완전하고, 부활의 신선함 안에 있으며, 그 영 안에 있다.
 - 2. 백 개의 석류마다 네 개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타고난 존재와 타고난 생명과 자아가 반드시 감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 3. 우리의 타고난 존재가 사라질 때, 우리는 구십육 개의 석류, 곧 영적인 공기의 실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한 표현을 갖는다.

IV. 아가에 따르면, 석류는 개개인의 믿는 이가 그리스도와 나누는 사랑의 교통에 대한 점진적인 체험과 관련하여 영적인 의미가 있다 — 아 4:3하, 13상, 6:7, 11, 7:12, 8:2하.

- A. “너울 뒤 그대의 뺨은 / 석류 한쪽 같대요.” — 아 4:3하, 6:7.
- B. “나는 견과 과수원으로 내려갔어요. / 골짜기의 싱그러움을 보려고, / 포도나무 움이 돋았는지 / 석류나무 꽃이 피었는지를 보려고요.” — 아 6:11.
- C. “우리 일찍 일어나 포도원들로 가서 / 포도나무 움이 돋았는지 / 꽃망울이 터졌는지 / 석류나무 꽃이 피었는지 보아요. / 거기서 나의 사랑을 당신에게 바칠게요.” — 아 7:12.
- D. “내 석류즙으로 만든 / 향긋한 술을 드시게 하련만.” — 아 8:2하.
- E. “그대의 새싹들은 / 가장 좋은 열매가 달린 석류 과수원.” — 아 4:13상.
 - 1. 그리스도의 누림이 되는 그분의 연인은 속생명의 각양 표현인 다채로운 색과 성숙한 생명의 풍성한 표현인 다양한 향기를 지닌 온갖 식물이 자라는 잠긴 동산이다 — 아 4:13-14.
 - 2. 이것은 주님 앞에서 그 연인의 아름다움이 된다. 그리스도의 연인은 이제 생명에 있어서 풍성하여,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도록 자양분을 공급하고 신선하게 하는 열매를 산출하며, 달콤한 향기를 내뿜고, 아름다운 색채를 띤다.

V.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에서 우리는 신성한 본성을 누림으로 탁월한 미덕들이 발전하는 것을 본다.

- A.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은 신성한 생명의 여러 방면으로서, 좋은 땅의 풍성한 소산으로 예표되었다 — 벨후 1:3.
 - 1. 생명은 속에서부터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며, 경건은 안에 있는 생명이 밖으로 표현된 것이다.
 - 2. 생명은 내적인 에너지 곧 내적인 힘으로서 외적으로 경건을 산출하며, 이 경건은 영광으로 인도하고 또 영광을 가져온다.
- B. 믿음은 생명의 모든 것을 포함한 씨로 여겨질 수 있으며, 사랑은 생명의 씨가 완전히 발전한 열매로 여겨질 수 있다 — 벨후 1:3, 8.
- C. 결국 우리는 믿음이라는 씨로부터 시작하여 미덕과 지식이라는 뿌리들과 자체의 줄기와 인내와 경건이라는 가지들을 거쳐서 형제 사랑과 신성한 사랑의 꽃과 열매에 이르는, 생명의 충만한 발전과 성숙을 갖게 될 것이다 — 벨후 1:5-8.